

2019년 4월 10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 둔화 및 무역갈등 여파로 부진 미국, 대 EU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

미 증시 변화 요인: ①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②미국-EU 무역분쟁

미 증시는 IMF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3.5%→3.3%)과 미국의 대 EU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분쟁 우려가 유입되며 하락 출발. 이후 장중 일부 기업들에 대한 예닐리스트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재차 매물 출회되며 부진(다우 -0.72%, 나스닥 -0.56%, S&P500 -0.61%, 러셀 2000 -1.22%)

미 증시는 ①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②미국-EU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IMF는 글로벌 2019년 성장률에 대해 지난 1월 발표치 대비 0.2%p 하향한 3.3%로 제시. IMF는 “작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 활동이 뚜렷하게 위축되었다” 라고 주장. 특히 주요 선진국의 하향 조정이 뚜렷한 가운데 독일의 경우는 배기가스 규제책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점이 부담이었다고 언급. 다만, 신흥국은 견조한 모습. 특히 중국은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으로 오히려 0.1%p 상향 조정. 그러나 이미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 하향 조정 했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OECD 3.3%, WB 2.9%)

한편, 미국이 110억 달러에 달하는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EU 간 무역분쟁 우려도 부진 요인.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를 검토 한다고 발표. 트럼프는 “EU가 미국을 이용해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는 끝날 것” 이라고 주장. 시장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여부 결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월 28일 “90일 검토 권한(5/18)을 행사 할 수 있으나 협상을 통한 추가 검토 기간(180일)을 가질 수 있다” 라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 EU 관세 부과 검토로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주식시장에 부담.

IMF 2019년 성장률 전망치 수정

국가	성장률	변화	국가	성장률	변화
글로벌	3.3%	-0.2%	신흥국	4.4%	-0.1%
선진국	1.8%	-0.2%	한국	2.6%	0.0%
미국	2.3%	-0.2%	중국	6.3%	+0.1%
유로존	1.3%	-0.3%	아세안5	5.1%	0.0%
독일	0.8%	-0.5%	인도	7.3%	-0.2%
프랑스	1.3%	-0.2%	브라질	2.1%	-0.4%
영국	1.2%	-0.3%	멕시코	1.6%	-0.5%
일본	1.0%	-0.1%	러시아	1.6%	0.0%

자료: IMF, 키움증권, *변화는 1월 발표 대비, 한국은 10월 대비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13.56	+0.13	홍콩항셱	30,157.49	+0.27
KOSDAQ	756.81	+0.65	영국	7,425.57	-0.35
DOW	26,150.58	-0.72	독일	11,850.57	-0.94
NASDAQ	7,909.28	-0.56	프랑스	5,436.42	-0.65
S&P 500	2,878.20	-0.61	스페인	9,407.80	-0.32
상하이종합	3,239.66	-0.16	그리스	753.16	-0.06
일본	21,802.59	+0.19	이탈리아	21,671.78	-0.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주요 종목, 애널리스트 보고서 영향에 민감한 반응

디즈니(+1.65%)는 코웨이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Market perform→Outperform)한데 힘입어 상승 했다. 콤케스트(+0.81%)도 맥쿼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Outperform)하자 상승 했다. 페이스북(+1.51%)은 모건스탠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한 상거래로 수익개선 가능성이 높으며 목표주가를 상향조정(190달러→195달러)하자 상승 했다. 애플(-0.30%)은 웹부시가 아이폰에 대한 안정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215달러→225달러)한 데 힘입어 장중 상승하는 등 낙폭이 제한되었다.

반면, 보잉(-1.46%)은 골드만삭스가 항공산업 성장 속도 둔화 및 737 맥스 여파로 실적 둔화 우려가 높으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425달러→393달러)하자 하락 했다. SAP(-3.97%)은 UBS가 성장잠재력이 낮아졌으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Buy→Neutral)하자 하락했다. US스틸(-9.98%)은 크레딧 스위스가 경쟁우위가 약화 되었다며 향후 실적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Neutral→Underperform)하자 하락 했다. AK스틸(-5.80%)도 동반 하락 했다. BOA(-0.96%)은 최저 임금을 인상(17달러→20달러)하자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 했다. JP모건(-0.74%) 등 금융주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00%	대형 가치주 ETF(IVE)	-0.71%
에너지섹터 ETF(OIH)	-1.38%	중형 가치주 ETF(IWS)	-0.92%
소매업체 ETF(XRT)	-1.21%	소형 가치주 ETF(IWN)	-1.26%
금융섹터 ETF(XLF)	-0.83%	대형 성장주 ETF(VUG)	-0.42%
기술섹터 ETF(XLK)	-0.47%	중형 성장주 ETF(IWP)	-0.6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2%	소형 성장주 ETF(IWO)	-1.16%
인터넷업체 ETF(FDN)	0.00%	배당주 ETF(DVY)	-0.78%
리츠업체 ETF(XLRE)	-0.3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7%
주택건설업체 ETF(XHB)	-1.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3%
바이오섹터 ETF(IBB)	-1.61%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V)	-0.26%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30%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1.09%	Long/short ETF(BTAL)	+0.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6.42	-1.29%	+0.76%	+3.47%
소재	359.38	-0.78%	+1.55%	+3.39%
산업재	637.24	-1.40%	-1.21%	+2.39%
경기소비재	925.47	-0.90%	+1.53%	+6.64%
필수소비재	575.66	-0.15%	+0.29%	+2.43%
헬스케어	1,060.94	-0.39%	-0.07%	+0.92%
금융	438.18	-0.88%	+0.16%	+0.78%
IT	1,330.64	-0.52%	+0.70%	+6.02%
커뮤니케이션	162.12	+0.02%	+0.94%	+2.11%
유틸리티	293.33	+0.26%	-0.01%	-0.23%
부동산	224.62	-0.32%	-0.46%	+2.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된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2% MSCI 신흥 지수 ETF 도 0.2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14 계약)에도 불구하고 0.55pt 하락한 287.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0.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 요인 중 IMF 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주요 기관에 비해 전망치가 높았기에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 미-EU 간 무역갈등 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내용이었고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이슈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속에 주가지수가 상승해 밸류에이션이 우호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변화 요인을 빌미로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증시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EU 간 무역갈등 이슈는 전일 장중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과 EU 간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EU 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부진

3 월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1.7) 보다 개선된 101.8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 중 고용과 실적 지표가 개선되는 등 여전히 견고한 미국 경기를 반영했다.

2 월 미국 채용공고 수치는 전월(762.5 만건)을 하회한 708.7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이는 정부 셋다운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제한적인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IMF 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추가적인 감산은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리비아와 이란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엔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미-EU 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 약세 영향으로 소폭 강세를 기록했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강세폭은 제한되었다.

국제금리는 IMF 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미-EU 간 무역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3 년물 국제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63 배)을 하회한 2.49 배에 그쳤다는 소식이 제기되자 낙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부진한 경제지표 및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EU 무역갈등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1%, 철근도 0.1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98	-0.65	+2.24	Dollar Index	97.014	-0.04	-0.36
브렌트유	70.61	-0.69	+1.79	EUR/USD	1.1263	0.00	+0.53
금	1,308.30	+0.49	+1.00	USD/JPY	111.16	-0.29	-0.14
은	15.211	-0.03	+1.00	GBP/USD	1.3054	-0.05	-0.56
알루미늄	1,878.00	+0.37	-0.58	USD/CHF	0.9999	+0.10	+0.20
전기동	6,487.00	+0.19	+0.94	AUD/USD	0.7128	+0.01	+0.81
아연	2,861.00	-1.55	+0.18	USD/CAD	1.3323	+0.07	-0.10
옥수수	360.00	0.00	-0.41	USD/BRL	3.8554	+0.12	-0.00
밀	459.50	-1.24	-0.97	USD/CNH	6.7203	+0.04	-0.09
대두	898.75	0.00	-0.14	USD/KRW	1142.10	-0.23	+0.50
커피	93.65	+0.75	+2.18	USD/KRW NDF1M	1140.05	-0.11	+0.35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01	-2.16	+2.65	스페인	1.072	-1.10	-4.10
한국	1.867	-0.80	+1.70	포르투갈	1.193	-2.90	-5.70
일본	-0.048	-0.30	+1.40	그리스	3.451	-2.10	-22.90
독일	-0.010	-1.70	+3.90	이탈리아	2.422	-6.20	-10.00